

#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14)<sup>1)</sup>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 I. 오세아니아

### [호주, 뉴질랜드]

#### 1. (2019년 5월 10일자) 트랜스태스먼 버블에 의한 낙농업계의 노동력 확보 노력(호주 NZ)

호주와 뉴질랜드(NZ) 간에는 4월 19일부터 시작된 트랜스 태즈먼 버블(Trans-Tasman bubble)이라 불리는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양국 낙농업계에서는 반응이 분분하다.

트랜스 태즈먼 버블이란 태즈먼 해를 사이에 둔 호주와 NZ 양국 간에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과 행동추적 앱 다운로드 등을 조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검역격리를 면제하고, 사람의 왕래를 허용한다는 양국 간 합의이다. 다만 4월 23일 서호주(WA) 주 퍼스에서 COVID-19의 시증 감염자 2명이 확인되어, 퍼스 도시권을 중심으로 같은 달 24~27일까지 록다운이 실시됨에 따라, NZ와 WA 주 간의 이동에 다시 제한이 생기는 등 COVID-19의 감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호주의 낙농업계 단체인 데일리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하면, 호주 낙농업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는 낙농가 호수의 유지와 노동력 확보이지만, 특히 작년부터 COVID-19에 의한 국경 봉쇄에 의해 지금까지 호주 국내의 1차 산업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던 워킹 홀리데이와 어학 유학 학생 등이 귀국한 것 등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COVID-19의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지만, 2019/20년도(7월~다음해 6월)의 호주의 낙농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2,700명 감소(전년도 대비 5.8% 감소)하였다(표 1).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13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표 1〉 호주 낙농업계의 노동자 수 등

년도	2018/19	2019/20	증감(%)
낙농관련산업 종사자 수	46,200명	43,500명	- 5.8
그 중 농장 종사자 수	24,400명	23,200명	- 4.9
그 중 가공부문 종사자 수	21,800명	20,300명	- 6.9
낙농가 수	5,213호	5,055호	- 3.0

자료: Dairy Australia

한편, NZ의 낙농 관련 산업의 종사자수는, 농장 종사자수 3만 409명(전년도비 10.6% 감소)으로 감소한 반면, 가공·도매 부문의 종사자수는 1만 9,508명(전년도비 62.6% 증가)으로 전체 4만 9,917명(전년도비 8.5% 증가)으로 증가하였다(표 2).

〈표 2〉 NZ 낙농업계 노동자 수 등

년도	2018/19	2019/20	증감(%)
낙농관련산업 종사자 수	46,000명	49,917명	8.5
그 중 농장 종사자 수	34,000명	30,409명	- 10.6
그 중 가공부문 종사자 수	12,000명	19,508명	62.6
낙농가 수	7,967호	7,865호	- 1.3

자료: Dairy NZ

데어리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청취조사에 의하면, 호주 및 NZ 낙농현장에서는 통상 계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에서 양국 모두 일손 부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며, 특히 호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호주 측에서는 트랜스태스맨 거품을 활용하여, NZ의 노동자를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표 3).

〈표 3〉 호주와 NZ 낙농현장에서의 연간 평균 임금 수준

	호주	NZ
농장 경영자	66,000AUD	65,000NZD
일본 엔화 환산	5,676,000엔	5,135,00엔
한국 원화 환산	56,562,000원	51,502,750원
농장 종사자	56,000AUD	46,000NZD
일본 엔화 환산	4,816,000엔	3,634,000엔
한국 원화 환산	47,992,000원	36,448,100원

주: 1AUD = 86엔=857원, 1NZD=79엔=792.35원(2021년 3월말 기준 환율)

자료: Pay Scale

예를 들면, 호주의 인재소개회사에서는 이 트랜스태스맨 거품을 계기로 NZ로부터의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무료항공권이나 소개처에서의 고액 임금, 복리후생을 제시하는 등의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호주 측 움직임에 대해 NZ의 낙농단체인 데어리 NZ는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NZ의 낙농가를 향해 가능한 한 현재의 스태프를 유지 확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NZ에서는 이전부터 데어리 NZ와 농업단체인 농민연합(Federated Farmers)이 공동으로 우수한 인재 관리를 위한 5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낙농현장에서의 직장행동계획(Workplace Action Plan)을 수립하여, 농장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노동자에게 있어서의 매력적인 직장환경 제공을 통한 매력적인 직장환경 제공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분간 외국인 근로자 확보는 어려워 양국 낙농업계 간에 인재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海外情報-「畜産の情報」2021年 7月号

## II. 유럽

### [EU]

#### 1. (2019년 5월 17일) 유럽위원회, 코로나 재해 생산자에 대한 지원 조치 연장을 채택

유럽위원회는 5월 4일, 코로나 재해 규제 하의 공통 농업정책(CAP) 보조금 지불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당국 및 생산자의 행정 절차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지원조치<sup>2)</sup>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채택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발생 이래 기존의 민간 재고 보조<sup>3)</sup>의 활용과 더불어 생산자 및 중소기업 대상의 보조<sup>4)</sup>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20년 말로 종료될 것으로 여겨졌던 동 지원조치는 이번 채택으로 2021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게 되었다.

- 
- 2)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追加支援措置を採択.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影響下にある生産者のキャッシュフローの改善など」([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81.html))
  - 3)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欧州委員会,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追加対策を採択. 乳製品, 牛肉などの民間在庫補助(PSA)を5月7日から. チーズは最大10万トン市場隔離へ」([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692.html))
  - 4) 農畜産業振興機構, 海外情報「EU理事会, 生産者および中小事業者向け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追加支援措置を採択」([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4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41.html))

동지원 조치에서는 CAP에 근거하는 농지 출입 검사 시에, 위성사진이나 경도·위도의 위치 정보가 내장된 사진 등을 새롭게 증거 서류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출입검사 시 생산자와 검사관의 물리적인 접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 지원 조치에는 가맹국에 있어 COVID-19에 의한 이동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출입검사 연기가 가능해지는 유연한 대응도 포함되어 있다. 직불, 농촌개발, 과일·채소·와인·올리브오일·양봉 분야 시장지원 사업에 대한 물리적 현장점검도 줄어든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海外情報-「畜産の情報」2021年 7月号

## 2. (2021년 7월 5일) EU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와 제안

EU 위원회에 의해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에 관한 평가 결과, 많은 부문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몇몇 부문에서는 시장 왜곡, 재정투입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농업부문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

정책 방향	효과성	효과를 제한한 주요한 원인
교통 및 자유 이동	높음	• 없음.
경쟁	중간	• 단일 시장 내 왜곡 발생 가능성 • 정부 보조금(state aids)으로 인한 문제
식품 안전	높음	• 없음.
공동농업정책 적용의 유연성	높음	• 회원국별 지원으로 인한 몇몇 문제 발생
EAFRD 하의 예외적 일시 지원 정책	높음	• 없음.
공동시장 경쟁 법안의 개정	낮음	• 실제적 활용에 대한 지식 부족 • 합의와 결정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족
일시적 사적 저장 지원	낮음	• 제한된 범위 및 재정 • 과도한 행정력 필요
와인 부문 특별 지원	낮음	• 불명등하고 적절하지 않은 국가 정책과 재정투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발생 • 고품질 와인 생산 및 지리적 특성에 반하는 조기 수확 제도 • 팬데믹 기간 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부족
채소 및 과일 부문 특별 지원	높음	• 없음.
특정 농업 부문에 대한 홍보 지원	높음	• 없음.

### (식량 비축)

CAP 2014-2020 기간 동안 매년 4억 유로를 투입하여 총 28억 유로가 7년간 사용되었다. 미래에는 이러한 식량 비축이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직불금제도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CAP 2021-2027에서도 식량 비축 정책에 매년 4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정투입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공동농업협정의 제한된 역할)**

다년도 재정투입 계획 2021-2027에 따르면, 공동농업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이 1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래에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변화된 소비 패턴 반영)**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했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푸드뱅크 등을 통한 식품 지원과 값싼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속적이고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 미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정책 제안 ▣**

정책 방향	세부 내용
식품 시스템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의 위기관리 정책을 수립을 위해서는 식품 공급 사슬의 전 범위에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li> </ul>
시장 관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li> <li>식품 시장 운영자들이 미래의 식품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 마련</li> </ul>
식량 비축(crisis reser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 직불금제도와 식량 비축 제도의 탈동조화(decoupling)는 위기 기간의 유럽연합의 재정적 가용성을 강화</li> </ul>
정부 보조금(state ai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지원의 시장에 대한 중단기 효과가 경쟁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지 감시할 필요</li> </ul>
연속적이고 적절한 식품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할 필요 존재</li> </ul>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와 제안’,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Vol. 26, 2021년 7월 6일

- 원문출처: 유럽의회조사처, “European agriculture: a sector-based analysis of food systems and market resilience” (2021.5.28.)(<https://enrd.ec.europa.eu>)

**[영국]**

1. (2021년 7월 14일) 英, 미래의 소비자 어린이 대상 농업 교육 진행 - 낙농산업은 물론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용 콘텐츠 무료 제공

영국 농업원예개발공사(AHDB)가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AHDB는 어린이들이 섭취하고

있는 식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육되고 생산되는지에 대한 이해력 증진은 물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부문에서는 우유 및 유제품 생산 등 낙농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용 파일을 비롯해 PPT 활동지 포스터 및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어린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웹사이트 방문자가 80% 증가했고, 자료 다운로드 횟수도 1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수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교육] 英, 미래의 소비자 어린이 대상 농업 교육 진행 - 낙농산업은 물론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용 콘텐츠 무료 제공’,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7월 14일

- 원문출처: ahdb.org.uk, 7월 12일자

### Ⅲ. 아시아

#### [일본]

#### 1. (2021년 7월 16일) 음식점 술 판매 금지에 분노한 도쿄시민들- [도쿄올림픽 D-7] [도쿄 다이어리] “편의점서 사 공원서 마시면돼” ... 상인들 “과태료 물고 장사할것”

격리 사흘째인 15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니 일본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 온통 ‘총리가 사과하고 장관은 사퇴 압박에 몰렸다’는 뉴스로 시끄럽다. 이른바 ‘술 거래 정지’ 혼란 때문이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8일 남았는데, 신문의 얼굴이라는 1면에서도 올림픽 소식보단 이 뉴스가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만 ‘일왕 개회식 참석’ 뉴스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술 거래 정지’가 뭐길래 개막 직전까지도 올림픽을 밀어내고 있는 걸까.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 도쿄도(東京都)에 통산 4번째 긴급사태를 발효하면서 내린 ‘금주 요청’이 발단이 됐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음식점에 술을 팔지 말도록 한 조치’를 말한다.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술자리를 줄

여 감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어 사실상 ‘금주령’ 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조치가 ‘요청’에 그치다 보니 강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는 앞서 8일 금융기관을 동원해 주류 제공 업체를 압박했고, 주류 판매 업체들에는 ‘지원금’을 무기로 음식점과 술을 거래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후자가 바로 ‘술 거래 정지’다.

하지만 수없이 되풀이된 강압 조치에 지쳐버린 일본 국민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술집에서 안 팔면 편의점에서 사 공원에서 마시면 되지 않느냐는 식이다. 경찰이나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봐도 ‘얼른 귀가하라’고 몇 마디 하고 지나갈 뿐이라고 한다.

주요 이익 단체인 주류 업계를 건드리는 바람에 여당도 불만이 가득하다. 안팎의 비난에 정부는 결국 지난 14일 밤 ‘술 거래 정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를 담당 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다음 날 TV아사히 뉴스에 출연한 한 주류 판매점 사장은 “철회하기 전에 애초에 그런 말을 말았어야지. 생각을 좀 하라”며 역정을 냈다.

일본 국민은 일련의 대책이 올림픽 앞에 가면 강도가 무뎌진다는 사실에 더 박탈감을 느낀다. 선수촌에 술 반입이 허용된 게 일례다. 그래서일까 도내 곳곳엔 정부 요청을 무시하고 그냥 술을 파는 ‘반란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본 대형 부동산 기업에서 외식업 건물 매각을 담당하는 지인에게 전화해봤다. “지난 몇 달간 더 못 버틴다면서 가게를 내놓는 사장들이 많았는데, 최근엔 상담 중 ‘과태료(30만 엔) 내고 말지 이대로 죽진 않겠다’며 그냥 장사하겠다는 주인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들에겐 올림픽 개막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었다. 먹고(마시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 뭐가 눈에 보이겠나 싶었다.

(출처) 조선일보, ‘음식점 술 판매 금지에 분노한 도쿄시민들- [도쿄올림픽 D-7] [도쿄 다이어리] “편의점서 사 공원에서 마시면 돼” ... 상인들 “과태료 물고 장사할 것” 2021년 7월 16일자

- 원문출처;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general/2021/07/16/W5R6B32W55DGZLGS6L6DGMFDQ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general/2021/07/16/W5R6B32W55DGZLGS6L6DGMFDQ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중국]

1. (2021년 7월 15일) 중국 정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이후 식량 안보에 대한 정책 강화, 정부가 농부들에 대한 곡물 재배 보조금 안정화, 농부들이 버려진 땅에서 농작물 재배, 겨울철 휴경 밭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21년 여름 밀 수확량 2% 증가

중국 통계국은 올여름 재배 면적 증가와 곡물 수확량 증가로 밀을 더 많이 수확했다고 밝혔다. 통계국은 전국 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름 밀의 생산량이 2020년보다 2% 증가한 1억 3,400만 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일부 최고 성장 지역에서의 새로운 작물의 품질은 악천후로 인해 떨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석가들은 수확 전과 수확 기간 동안 산둥, 허난, 허베이, 후베이 등 주요 생산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작물의 품질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시장은 올해 농작물에 대한 비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계국은 밀 재배 면적과 수확량이 각각 전년보다 0.9%,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1년 중국의 여름 총 곡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2.1% 증가한 1억 4,582만 톤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생산량 증가는 밀을 중심으로 한 여름 곡물의 재배 면적이 전년보다 1%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통계국은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 당국과 정부 당국이 가장 엄격한 토지 보호 제도를 시행한 반면, 국가는 곡물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밀의 최저 구매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이후 식량 안보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인구의 곡물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통계국은 정부가 농부들에 대한 곡물 재배 보조금을 안정화시키고, 농부들이 버려진 땅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겨울철에 휴경하는 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ina’ s 2021 wheat output in summer harvest rises 2%(중국의 2021년 여름 밀 수확량 2% 증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7월 15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6060/page/1](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606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 [인도]

### 1. (2021년 6월) 인도, 온라인 우유 배달 활성화. 향후 5년간 온라인 우유 배달 스타트업 연평균 50% 성장 전망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도 온라인 우유 배달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시장조사업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의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33억 달러(약 3조 7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그 중 온라인 우유 배달 스타트업이 7-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스타트업은 우유뿐만 아니라 과일, 야채 등 취급상품수(SKU)를 확대해 제품을 다양화함에 따라, 매일 15-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관계자는 온라인 우유 배달은 높은 배송비로 인해 지리적 접근성이 제한적이어서 폭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 및 마케팅 동향] 인도, 온라인 우유 배달 활성화’, 「세계낙농시장 6월 4주차 동향」, 2021년 7월 6일

- 원문출처: [financialexpress.com](http://financialexpress.com), 6월 22일자

## IV. 글로벌

### 1. (2021년 6월 29일) 소비자 10명 중 4명, 코로나19 이후 기능성 식음료 구매 늘려 - 면역력 강화식품의 일부로 요거트와 유음료 구입 증가 추세

소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기능성 식음료 및 보충제 구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일랜드 식품회사인 케리그룹이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 파악을 목적으로 16개국 13천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발발 이후의 소비자들이 44% 더 많은 건강보조제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42%는 기능성 또는 강화식품 구입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식품 구매를 늘린 이유로 면역력 강화를 꼽은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뼈와 관절 강화(46%), 소화기(43%), 심장 건강(40%) 그리고 열량 보충(39%)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 중 30%가 지난 6개월간 꾸준히 면역력 강화식품을 섭취한데 이어, 30%가 향후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잠재적으로 면역식품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시사했다. 업계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요거트 및 유음료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간주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투명한 식품 공급망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 강화는 물론 니즈 충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소비자 10명 중 4명, 코로나19 이후 기능성 식음료 구매 늘려 - 면역력 강화식품의 일부로 요거트와 유음료 구입 증가 추세’,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6월 29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http://dairyindustries.com), 6월 25일자

## 2. (2021년 7월 6일) 무섭게 치솟는 세계 식량가격... ‘애그플레이션’ 공포. 아르헨티나 소고기값 90% 급등, 대표요리 수출 전면중단 조치도, 최대 밀생산지 러 파스타값 급등, 식량가격지수 10년새 최대 상승

글로벌 식량 가격이 유례없이 치솟으면서 아르헨티나 쇠고기를 비롯해 러시아 파스타, 나이지리아 쌀요리(jollof·졸로프) 등 세계 각국의 주식(主食)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중국발 수요 급증, 유가 변동, 코로나19 확산·완화 등이 식량 가격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설상가상 곡창지대인 미 중서부 등이 가뭄 장기화에 시달리면서 ‘애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5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쇠고기 진흥기구는 최근 1년 새 아르헨티나의 갈비 kg당 가격이 90% 이상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아르헨티나 육류업계는 국민 1인당 연간 육류소비량이 1956년 기록한 최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상 최저인 49.7kg으로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가격 급등에 따른 육류 소비 감소가 아르헨티나 대표 요리 ‘아사도’ 바비큐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 달간 중국 등 해외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하기도 했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벤저민 게단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책임자는 “육류 가격의 정치학은 아르헨티나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대 밀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서도 파스타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어렵던 구소련 시절 먹던 “해군식 파스타”를 언급하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수확을 하면서”라고 비판했다. 당시 러시아 국내 파스타 가격은 10.5% 급등한 상황이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파스타 수출 및 가격 인상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서아프리카 최대 인구의 나이지리아에서도 식품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 SBM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졸로프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뛰었다. 졸로프 지수는 서아프리카 대표 주식인 쌀요리에 들어가는 식자재 가격 추이를 지표화한 수치다. 세계은행은 식량 가격 상승이 나이지리아인 700만 명을 빈곤 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6월 초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5월 세계 식량가격지수(FFPD)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등한 127.1을 기록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중국의 곡물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3000만t(12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 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돼 외식이 늘면 가격 상승 폭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 중서부, 브라질 등 세계적 곡창지대가 가뭄 등에 시달리면서 올가을 식량 대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컬렌 헨드릭스 덴버대 교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은) 정말 불안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문화일보, ‘무섭게 치솟는 세계 식량가격… ‘애그플레이션’ 공포’, 2021년 7월 6일  
일자 기사

- 원문출처; <https://www.fnnews.com/news/202106211747207092>

### 3. (2021년 7월 6일) 세계 식량가격 1년 전보다 40% 급등... 10년 만에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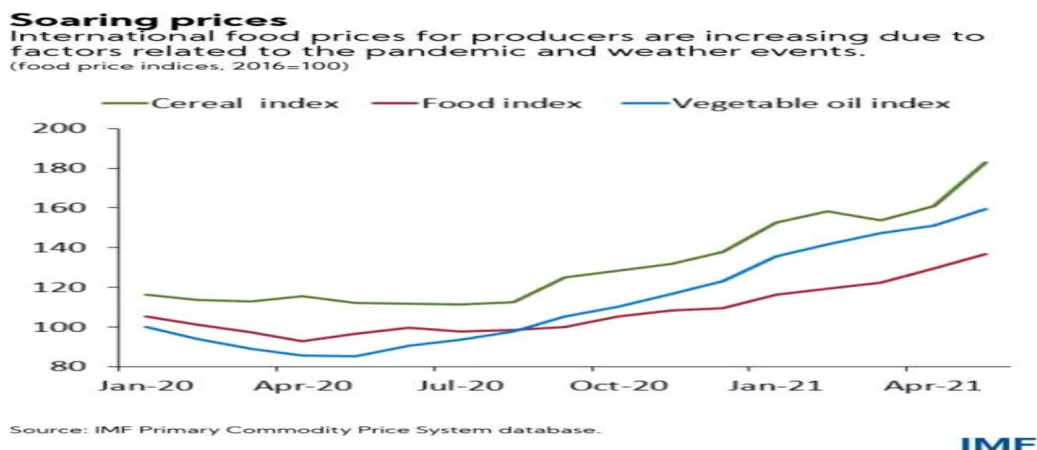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한 쌀가게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쌀이 담겨 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나이지리아의 식품 가격이 22%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의 쌀 요리, 러시아 수프, 아르헨티나 스테이크에 이르기까지 세계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5월 전 세계 식량 가격이 1년 전보다 40%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가 식량 가격 상승을 이끌고, 저소득 국가의 빈곤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대표 음식 재료값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지난 3월 나이지리아의 ‘졸로프 지수’는 1년 전보다 7.8% 올랐다. 졸로프 지수란 나이지리아의 대표적 쌀 요리인 ‘졸로프 라이스’의 재료가 되는 칠면조, 닭고기, 쇠고기, 조미료, 쌀, 토마토, 양파의 가격을 측정한 지표다. 나이지리아의 5월 식품 가격 인상은 22.3%에 달했다.

러시아식 수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보르시 지수’도 12% 올랐다. 보르시의 재료인 토마토, 양파, 감자, 쇠고기, 양배추, 조미료 등의 가격이 올랐다. 올해 러시아의 설탕(70%), 해바라기씨유(24%), 밀가루(13%), 빵(6%) 가격도 지난해보다 올랐다. 지난해 말에는 파스타 가격이 10.5% 오르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인들이 과거 소련 시절에나 먹었던 것 같은 해군식 파스타를 먹고 있다”면서 각료들을 질타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지난 3월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인의 58%가 식품 가격을 비롯한 물가상승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개한 2016년 대비 곡물가격지수(초록색), 식품가격지수(빨간색), 식물성기름가격지수(파란색)

아르헨티나에서는 숯불에 장시간 구운 전통 쇠고기 요리인 ‘아사도 바비큐’를 먹기 어려워졌다. ‘아르헨티나 쇠고기 진흥연구소’는 올해 소갈비 1kg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90%나 급등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주말마다 바비큐 문화가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쇠고기 가격 인상은 큰 사회 문제”라고 전했다. 급기야 아르헨티나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5월 한 달간 쇠고기 수출을 중단했다.

FAO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전년보다 40% 올라 2011년 9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옥수수는 88%, 대두는 73%, 곡물과 유제품이 38%, 설탕이 34%, 육류는 10%씩 가격이 올랐다.

세계 식량 가격이 오른 주요 원인으로는 달러화 가치 하락,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 동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살처분 등과 함께 기후 위기가 꼽혔다. 세계경제포럼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 주요 식품 수출국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뭄 등 기후 변화가 발생했고, 수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지난 2월 불어닥친 한파로 농부와 목장주들이 최소 6억달러(6778억원)의 손실을 봤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부터 일부 국가에서 식량 가격은 더 올랐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의 아리프 후세인은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여러 국가에서 식량 가격 상승률이 20%를 넘었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각국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식품 운송비가 늘어났고, 일부 국가는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다.

저소득 국가 빈곤층은 식량 가격 상승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아프리카뉴스는 지난 4일 나이지리아 어린이 1,700만 명이 영양실조 상태이고, 3명 중 1명은 부실한 식단으로 성장이 더디다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나이지리아인 700만 명이 식품 가격 상승으로 빈곤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나이지리아의 리스크 관리 기업인 SBM 인텔리전스의 경제학자 튠더 레이는 “나이지리아인들은 평균 수입의 70~80%를 식비로 쓰느라 임대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동의 레바논에서는 노동자들이 지난달 17일 빵값 인상과 통화가치 하락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식량 가격에 대한 장단기 전망은 엇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은 5일 식량 가격이 올해 말까지 정점을 찍은 후 내년에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국의 코로나19 봉쇄 종료, 여행 제한 완화, 노동자 일터 복귀 등이 식량 생산량과 교역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식량난이 가중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FAO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아브돌레자 아바시안은 “식량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단기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경쟁과 기후위기로 전망이 나빠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세계 식량가격 1년 전보다 40% 급등... 10년 만에 최고치’ 2021년

7월 6일자

- 원문출처: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07061620011>

#### 4. (2021년 7월 14일) 코로나19 이후 세계 유제품 소비 동향

면역력 강화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유제품 구입 늘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 및 시장분석 전문기업인 라보뱅크가 발표한 2/4분기 세계낙농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유제품 시장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매 및 식품서비스업의 유제품 수요가 팬더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자가 늘고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홈쿡이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본격적인 백신 보급과 경기 회복으로 외식 횟수가 늘어나면서 식품서비스업의 유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지난 3월 치즈 및 버터 구매가 크게 늘었고, 특히 버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제품이 건강은 물론 면역을 책임지는 주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일랜드 식품회사인 캐리그룹이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16개국 1만 3천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팬더믹 발발 이후 면역력 강화를 이유로 건강식품 구매를 늘렸으며, 면역력 강화식품의 일부로 요거트와 유음료 구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유제품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대체 우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식물성 우유를 접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일부 밀레니얼 세대는 코로나19 이후 식물성 대체식품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업계는 유제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더 나은 영양소 공급을 위해 노력해 한층 더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19 이후 세계 유제품 소비 동향’, 「IDF Korea Report 2/4분기」, 2021년 7월 14일

- 원문출처: [https://www.idfnews/IDF\\_Korea\\_Report\\_\(2021년\\_2분기\).pdf](https://www.idfnews/IDF_Korea_Report_(2021년_2분기).pdf), 7월 14일자

#### 5. (2021년 7월 14일) 각국의 ‘2021 세계 우유의 날 기념행사’ 이모저모

글로벌 식품인 우유의 가치와 낙농산업의 역할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FAO가 매년 6월 1일로 정한 세계 우유의 날(World Milk Day)이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했다.

행사가 처음 시작된 2001년 이래 세계 낙농업계는 식품으로서의 우유의 우수성과 전 세계 10억 인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낙농산업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매년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기관들은 대부분 및 온라인 눈 이벤트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며 우유의 우수성과 낙농업의 역할 등을 알리는 공익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낙농업의 환경, 영양, 사회경제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 ▲ IDF, 우유 잔을 들어라' 캠페인 전개 및 각국 행사 독려

금년 IDF 세계 우유의 날은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낙농업계의 노력을 보여 주고 전 세계 낙농산업 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회원국 역시 낙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나섰다.

먼저, IDF는 우유의 건강 및 영양상 이점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낙농산업의 헌신과 노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 우유의 날 에 개최된 총회에 앞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우유 잔을 들어라(Raise a Glass) 캠페인을 진행하고, 리뉴얼된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브라질, 칠레 등 회원국에서 진행된 세계 우유의 날 기념 행사를 소개했다.

또한,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낙농업의 중요성을 담은 동영상도 게재하고,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도 미국 및 독일의 사례를 공유했다.

#### ▲ 미국, 우유의 달 지정 및 다양한 행사 개최

미국은 1937년부터 6월을 우유의 달(National Dairy Month) 로 지정하고,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해 왔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우유를 나눠주거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낙농산업의 노고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특히, 미국낙농가협회 북동부지사(ADANE)는 지난 2015년부터 펜실베이니아 낙농가협회 및 기아구호단체와 협력해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년에도 펜실베이니아 지역에 2,100만 개 이상의 우유를 공급했으며, 뉴욕 낙농가협회는 해당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7,270달러(약 830만 원)를 모금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낙농업계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대 낙농협동조합인 미국낙농가협회(Dairy Farmers of America, DFA)는 세계 우유의 날을 맞아 고품질의 신선한 유제품은 물론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낙농산업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주요이슈] 각국의 ‘2021 세계 우유의 날 기념행사’ 이모저모’, 「IDF Korea Report 2/4분기」, 2021년 7월 14일

- 원문출처: [https://www.idfnews/IDF\\_Korea\\_Report\\_\(2021년\\_2분기\).pdf](https://www.idfnews/IDF_Korea_Report_(2021년_2분기).pdf), 7월 14일자

## 6. (2021년 7월 19일) FAO-OECD ‘낙농산업 중기전망 보고서’ -코로나19 영향과 관련하여

FAO와 OECD는 향후 10년 동안 세계낙농산업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생산 공급망과 소비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FAO와 OECD는 ‘2021-2030년 농업전망보고서(Agricultural Outlook 2021-2023)’ 를 공동으로 발간하고, 낙농부문에서는 우유는 물론 버터, 치즈, 전지·탈지분유 가격, 생산, 소비 및 교역 부문에 아울러 향후 10년간 세계 유제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 최근 동향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모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시작되지 않고 국가별 상황도 다르지만 낙농산업은 빠른 적응력과 회복력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및 유제품 생산, 운송 그리고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처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봉쇄령으로 식품서비스업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내 유제품 소비가 식품서비스업의 손실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원유 부족이나 잉여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 원유생산부문 - 착유두수 증가로 향후 10년간 매년 1.7% 증가 전망

향후 10년간 세계 원유생산량은 착유두수 증가로 매년 1.7% 증가하며, 다른 농식품 생산량에 비해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원유 생산 증가분이 총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대부분의 생산량을 내수용으로 소비하고 있어 세계 유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향후 10년간 매년 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착유두수가 소폭 감소하며, 세계 평균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착유두수는 물론 두당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며 생산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에 기반을 둔 뉴질랜드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원유생산량에 큰 변화는 없었다. 목초지 사육이 주로 이뤄지는 뉴질랜드는 북미나 유럽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나, 효율적인 초지관리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원유생산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 유제품 소비부문 - 소득 증가로 신선 유제품 소비 1.2% 증가 전망

전 세계적으로 세계 1인당 신선 유제품 소비량은 소득 증가로 지난 10년보다 높은 매년 1.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제품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유와 발효유 소비량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인구 및 소득 증가로 향후 10년간 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럽과 북미의 경우 1인당 신선 유제품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유지방에 대한 건강학적 효능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며 유지방 제품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홈쿠파 증가함에 따라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치즈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의 소득증가 및 도시화로 총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식습관 및 생활방식의 변화, 특히 햄버거와 피자 등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전체 소비량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전지·탈지분유 소비는 제과, 제빵 및 조제분유 수요가 꾸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탈지분유 및 유청 분말의 경우 최대 수요국인 중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주춤했으나, 향후 10년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 ▲ 유제품 가격부문 - 버터 2017년 최고치 이후 하락세...탈지분유는 안정세 유지, 치즈 및 전지분유는 버터와 탈지분유 가격흐름에 의해 좌우

유제품의 국제 기준가격인 오세아니아와 유럽의 버터, 치즈, 전·탈지분유 수출가격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의 가격을 전망해 보면, 버터 가격은 지난 2015년 이후 유지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탈지분유에 비해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2017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에 떨어진데 이어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탈지분유 가격은 코로나19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지분유와 치즈는 버터와 탈지분유 가격의 흐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유제품 교역부문 - EU, 뉴질랜드 및 미국 교역량, 전체 2/3 이상 점유로 세계 시장 주도

부패하기 쉬운 우유 및 유제품의 특성상 세계 유제품 교역량은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7%(원유환산기준)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인접국가(미국-캐나다, EU-스위스 등)간 발효유제품 거래량은 꾸준한 편이며, 최근 중국은 EU와 뉴질랜드로부터 시유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요 유제품 수출국은 EU, 뉴질랜드 및 미국으로 향후 10년간 이들 국가의 유제품 수출량은 전 세계 교역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경우 상당한 양의 치즈와 탈지분유를 수출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분유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오는 2030년 전체 수출량의 5%를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서방국가의 농산물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한 이후 벨로루시가 러시아의 유제품 수입 시장에 입지를 확대해 나가며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치즈 수출국은 EU로 미국과 뉴질랜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걸쳐 각각 캐나다 및 일본과 무역협정을 발효함에 따라 치즈 수출량이 확대되고 있어 오는 2030년 총 치즈 수출량의 약 4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대 수입국은 영국, 러시아, 일본, EU 및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가 버터와 전지분유 수출량의 40%와 53%를 점유하며 최대 수출국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이 여전히 최대 전지분유 수입국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 원유 생산량 증가로 전지분유 수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오는 2030년까지 치즈 생산량을 소폭 늘릴 전망이다.

#### ▲ 주요 이슈 - 코로나19 여파 지속...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확대 등도 변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큰 영향을 받은 가운데, 낙농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는 낙농산업에도 큰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국가별 접종률이 상이해 유제품 소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햄버거나 피자 등 외식으로 소비되는 치즈 등 유제품 판매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1인당 소득도 줄어들며, 유제품 소비는 물론 전반적인 낙농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수년간 유당불내증, 동물복지, 환경문제 등이 이슈화 되면서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유제품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젖소의 질병, 기후 변화, 국가 또는 지역별 정책과 무역협정 등도 세계 유제품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현안리포트] FAO-OECD '낙농산업 중기전망 보고서', 「Biweekly 세계낙농동향」 현안리포트 핫이슈, 2021년 7월 19일자

- 원문출처: [https://www.dairy.or.kr/kor/sub02/menu\\_01\\_5.html?pmode=view&table\\_idx=20332](https://www.dairy.or.kr/kor/sub02/menu_01_5.html?pmode=view&table_idx=20332)